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해외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성 명	장윤서	학 번	201812930
------	-----	-----	-----	-----------

활동내용

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



2019년 2월 9일, 일본의 대마도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에서 배로 약 1시간 반이던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부산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오로라호를 타고 도착한 대마도의 히타카츠항. 내려서 입국심사를 마친 후 바로 보이는 것은 아이스크림 자판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못봤던 것이라 신기했습니다. 그 옆의 음료수 자판기에는 음료수 뿐만이 아니라 초콜릿바와 같은 간식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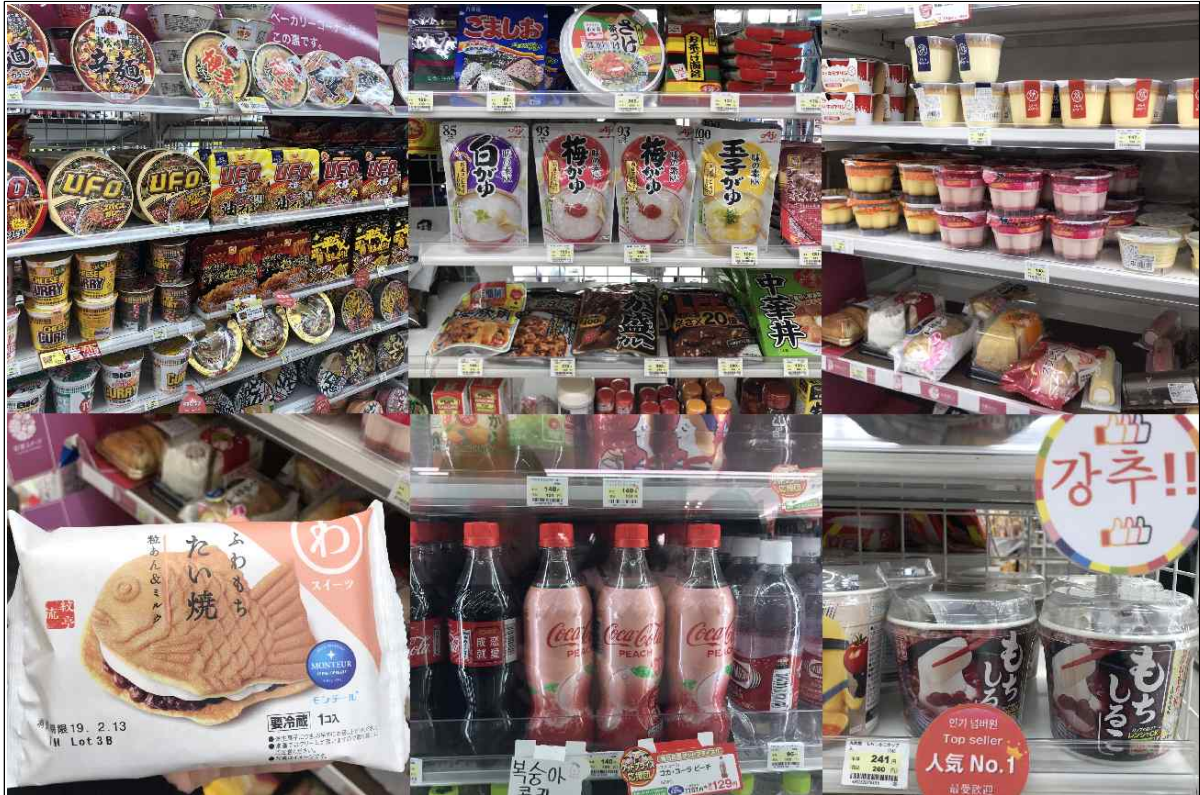


대마도에서 유명한 돈카츠 식당인 '히데요시'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손님이 붐벼, 가게 밖에서 30분 정도 웨이팅을 하였습니다.

웨이팅 후 들어간 가게 안에는 한글로 적힌 메뉴판, 추천글 등이 많이 적혀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가게 주인분도 '자리', '계산' 등의 간단한 한국말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다 돈까스 정식과 가쓰카레, 나가사키 짬뽕, 닭튀김 정식, 우동을 주문하였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가게를 구경하였습니다. 히데요시는 한국의 음식점과 다르게 포장지에 싸여진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였고 혼밥 하기에 좋은 1인석도 마련이 되어있었습니다. 기다렸던 음식이 차례로 나왔고, 음식은 웨이팅이 이해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가게 근처에 있는 '벨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많았습니다. 우동이나 교자, 명란 파스타 등 다양한 HMR 식품들이 있었고 냉동식품 코너에는 손질된 시금치와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냉동제품이기 때문에 1인가구가 이용하기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야끼소바, 도시락, 주먹밥, 튀김, 샐러드 등 다양한 완제품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했는데, 제품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벨류 마트에서 다양한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그중 가장 좋았던 제품은 푸딩 믹스와 딸기 요거트 믹스, 마늘 스프레드입니다. 푸딩 믹스와 요거트 믹스는 우유를 섞으면 푸딩과 요거트가 되는 제품이고, 마늘 스프레드는 식빵에 바르고 구우면 간편하게 마늘빵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만들기도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한국에도 이런 제품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 히타카츠항 근처의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편의점에는 다양한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또 눈에 띈 것은 죽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죽이 대부분인데, 일본의 편의점에서는 팩에 담긴 죽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냉장식품 코너에서는 다양한 푸딩, 모찌를 등을 볼 수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붕어빵과 비슷한 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붕어빵이 인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대마도의 편의점에서 붕어빵을 보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복숭아 콜라, 당고, HMR 형태의 찹쌀떡이 들어간 팔죽 등 신기한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p>지난 학기 동안 전공 수업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배웠습니다. 또한 기업 탐방을 통해 실무환경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해 알아가며, 해외의 식품산업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화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선진견학을 통해 그런 일본과 우리나라 식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아닌 견학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마트와 편의점은 물론이고, 지나가다 흔히 보이는 자판기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제품이나 한국에 있는 제품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며 배웠던 내용을 되살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견학으로 친구들과 일본의 식품을 탐방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p>